

단위총화(9/22~10/1)

**대경여대협(9월22일)**

호주제 폐지 과학생회 선언 관련 이야기 진행  
여학생운동 토론회 18일이 좋다고  
10월 31일 기자회견 및 공청회 진행한다고  
-역고소 관련,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 마련, 2003년 반성폭력 운동 평가  
-9월23일 회의 ->총화 못 해봄  
호주제 폐지 캠페인 제안 10월2일 ->못 함  
수활-경북대 윤주 참가

**서울지역**

경희대(9월 28일 이후)  
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벌이고 있음  
-호주제 폐지 연대모임 구성 : 문리대, 관광대를 중심으로  
-호주제 폐지 자료집 제작  
-호주제 폐지 핸드폴 줄 제작 나누어주면서  
-호주제 폐지 과학생회 선언 인터넷 투표로 진행했음  
-10월3일 투쟁 적극적으로 준비  
취업특강 진행하지 않음->총화 못 해봄  
선거준비 : 후보자 인선 마무리

**한양대(9월23일)**

9/23 전학대회서 호주제 폐지 특별결의문 채택하러->전학대회 무산  
'성격 있는 이야기'로 대중강연사업 진행 중  
-9월 25일 연애 뒤집어 보기 : 연세대 나윤경 교수  
-9월 30일 내 몸, 사랑하기 : 국민대 김현영 교수  
-10월 7일 성, 알 만큼 알지 않나? : 경향신문 배정원 씨  
10월 7일 애한제 준비  
-내몸의 주인은 나 진행할 계획  
10월 3일 참가할 계획

갑신대(9월23일) - 9월23~25일 2003 총여학생회 어울림제 '남녀好人' 진행

-전쟁과 여성 토론회  
-레크레이션 짝춤  
선거 : 농대 경영대 여학부장 고민중인데 단대에서도 요구가 있음

**동아대**

여성문화제  
-9/23 영화제 : 디아더스, 피아니스트  
-9/29 무대행사-가요제, 여학우 대표자 합창  
-10/1 취업특강  
=리플렛 제작해서 배포  
=부회장님과 송이가 준비  
=진이는 부산문화시민연대(준) 활동

**중집**

연사조직 간부 월수목 학원  
집장 - 활동에 열의가 많지 않음,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으며 하기로 한 올해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 
인선고민-집장이 내년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못함

**남여대협(9월 27일 진행)**

전대  
북녘 유적 답사 참가비 마련을 위한 주막 진행  
경영학부 여부장 북녘 유적 답사 참가  
총여선거 고민 : 대상자 선정해서 만나고 있는 중

**조대**

부회장님 혼자 생활해서 남녀대협 집장이 부회장님과 함께 많이 있음  
회장-전학투런 학생위원회 활동 중이라고  
9/23~24 조선여성제 진행  
-미대 여학생회와 '여성의 몸' 그림 그려 금강산 관광 때 금강산으로 보냄  
-간호대와 여성친화과 관련된 세미나 진행  
-여자대통령을 찾아라 진행  
-오름 "매니저 퀴" 공연  
-나와 부엉이'상영

경기대(9월23일)- 9월 23일 호주제 폐지 과학생회 선언 제안 -진행했음

**부경여대협(9월 23일 지도사업)**

광원대  
이번 주부터 수요일여성영화제 시작, 영화보고 토론까지  
유인물 선전 진행 중 : 아침 점심으로  
선전의식화 : 9월 호주제, 10월 초 반성폭력  
9월 23일 전학대회-호주제폐지 특별결의문 채택하러했으나 전학대회 무산  
9/29~10/2 반성폭력 기획선전  
9/29 여대생취업강좌  
10/20~23 : 10월 여성문화제  
-10/20 전쟁과 여성(정대협 강연, 사진전)  
-10/21 피임법 강연  
-10/22 월경축제  
-10/23 여성정치, 체육대회

**경남대 -선거준비**

**울산대**

여성문화제 : 10월 7~8  
-가요제, 피임기구 전시  
=주별 흐름 잡고 실무적인 부분 정리,  
=준비하면서 간담회, 실천활동 제안했으나 신경 안 쓰고 회장님 부회장님 사이 불화 심각  
울산지역 9월 19일 호주제 폐지 문화제  
인선고민 : 간부들 고민하고 있으나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음

**경상대**

조례 못하고 종래만, 회장님 생활력 안 되는 상황  
지난 주말 LT다녀왔다고  
인선과정에서 여성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: 총학생회 인선과정에서  
9월 20일 큰들 호주제 폐지 연극 진행  
금강산 모꼬지 총여 1인 참여  
여성 문화제 10월 14~17일 계획  
-김비화씨 강연(계획 중이었음, 섭외 불확실)

=전반적으로 조직화가 많이 안 됨  
=준비단이 적다 보니 내용 마련과 실무준비에 매진해서인 듯  
=대의사업을 통해, 학내언론사와 외부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감  
평가선망  
-남녀대협, 상대 여학생회와 함께 하기로  
선거준비  
-중앙 차원에서 조대 전체 여학우를 대상으로 논의 중

**광주대**

다음 주 전망논의, 학습도 할 계획(남여대협 집장과 함께)  
->후에 인선대상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 
9/22~23일 대동제 진행

**목대-총화 안 됨**

**동신대**

방중부터 활동 안됨  
총학과 문제가 있는 듯  
총여 직선제로 회칙 개정 필요-시기 놓친 듯  
총학생회 선거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

**중집**

올해를 돌아봤을 때  
-대의체계 발동, 16기 남녀대협 건설이 되지 않으면서  
-사업계획서 3,4월 제출 이후 제출하지 못함  
-진아 연행 후 활동이 안정적으로 되지 못하고  
-대학에 대한 지도가 안정적이지 못함  
10월 선거지도  
-조직 : 전대, 집장 : 그 외 대한  
다음 주부터 대학 평가전망 사업  
-선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핵심일꾼 모임 진행할 Pwjd  
인선고민-대상자 두고 고민 중  
조직국장 : 조직에 총화하고 11월 5일 이후 활동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고  
10월 25일 호주제 폐지 마당-여연과 함께 진행하는데 남녀대협에서 인형극 하기로 했다고